

# 한국어의 문법

정희원(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장)

## 1. 문장 성분

한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이 중 주어와 서술어는 특수한 문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나 목적어와 부사어, 보어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문장을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ㄱ. 주어+서술어: 바람이 분다 / 하늘이 푸르다 / 철수는 천재이다
- ㄴ. 주어+목적어+서술어: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 / 순희가 동화책을 읽는다
- ㄷ. 주어+부사어+서술어: 철수가 순희와 싸운다 / 철수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 ㄹ.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김 사장이 철수를 사위로 삼았다
- ㅁ. 주어+보어+서술어: 구름이 비가 된다 / 철수는 천재가 아니다

(1ㄱ)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때 주어는 주격조사 ‘이/가’로 표시됨이 일반적이거나 “철수는 천재이다”에서 보듯이 때로 보조사 ‘은/는’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1ㄱ)의 서술어는 “바람이 분다(←불-+-ㄴ다)”처럼 동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늘이 푸르다”처럼 형용사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철수는 천재이다”처럼 명사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1ㄴ)은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타동사라고 한다. (1ㄷ)은 서술어가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부사어는 주로 명사구에 부사격조사 ‘에, 에게’나 ‘와/과’ 등이 붙어 이루어진다. (1ㄹ)은 서술어가 목적어와 부사어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목적어와 부사어가 모두 있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

(1ㅁ)은 서술어가 보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보어는 명사구에 보격조사 ‘이/가’가 붙어 이루어지는데, 보격조사는 주격조사와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로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만 있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문장 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으로서 문장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성분인데, 한국어의 문장 성분 중에는 이러한 필수적 성분 외에 필수적 성분을 꾸며 주는 수의적 성분과,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도 있다.

- (2) ㄱ. 관형어+체언: 철수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다 / 순희가 새 동화책을 읽는다
- ㄴ. 부사어+용언: 바람이 세게 분다 / 철수가 영화를 몹시 좋아한다
- ㄷ. 독립어: 아차,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군 / 아이고, 이게 누구야?

(2ㄱ)의 관형어 ‘어려운’, ‘새’는 뒤에 오는 명사구를 꾸며 주는 성분이고, (2ㄴ)의 부사어 ‘세계’, ‘몹시’는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성분이다. 이러한 경우의 관형어, 부사어는 (1)에 제시된 성분과 달리 생략이 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수의적 성분이라 한다. (2ㄷ)에서 ‘아차’, ‘아이고’는 문장의 나머지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독립 성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독립어는 대체로 감탄사로 이루어진다.

## 2. 문장의 종류

한국어의 문장은 그 끝맺는 유형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1) ㄱ. 어휴, 더워서 못 참겠다. (해라체)  
 ㄴ. 과장님은 벌써 퇴근하셨어. (해체/반말체)  
 ㄷ. 나 먼저 가네. (하계체)  
 ㄹ. 나는 이제 아무런 욕심도 없소. (하오체)  
 ㄹ. 봄에는 꽃이 활짝 피어요. (해요체)  
 ㅂ.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쇼체)  
 (2) ㄱ. 내가 도와 주마. (해라체)  
 ㄴ. 내가 도와 줘주세요. (하계체)

평서문은 화자가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내용을 진술하는 문장 종결의 양식으로서 (1)에서 보듯이 주로 종결어미 ‘-다, -ㄴ다 /-는다, -어, -네, -소/-오, -어요, -습니다’ 등에 의해 표시된다. (2)는 화자가 약속을 하는 특수한 종류의 평서문으로서 종결어미 ‘-마, -주세요’에 의해 표시된다.

감탄문은 화자가 어떤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거나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쓰이는 문장 종결의 양식으로서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때로는 거의 독백(혼잣말)하는 듯한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도 쓰인다. 감탄문을 형성하는 종결어미로는 아래 (3)에서 보듯이 ‘-구나, -군, -구먼, -구려’가 대표적이다. 아래에서 (3ㄹ)은 형용사에 ‘-어라’가 붙어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이다.

- (3) ㄱ. 달이 참 밝구나. (해라체)  
 ㄴ. 마침 잘 만났군. (해체/반말체)  
 ㄷ. 날씨가 참 좋구먼. (하계체)  
 ㄹ. 참 고맙구려. (하오체)  
 ㄹ. 아이고, 추워라. (해체/반말체)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미지(알지 못함)의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 종결의

양식으로서 종결어미 ‘-느냐, -니, -아/-어, -나/-은가, -오/-소, -어요/-아요, -습니까/-습니까’ 등에 의해 표시된다.

- (4) ㄱ. 어른은 안 계시느냐? (해라체)  
 ㄴ. 철수야, 학교에 가니? (해라체)  
 ㄷ. 아직도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 (해체/반말체)  
 ㄹ. 자네, 어딜 가나? (하계체)  
 ㄷ. 무얼(←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오시오? (하오체)  
 ㄹ. 벌써 일이 끝났어요? (해체)  
 ㅂ. 식사 하셨습니까? (합쇼체)

(4ㄱ, ㄴ)의 ‘-느냐’, ‘-니’는 모두 해라체에 속하나 ‘-니’가 ‘-느냐’에 비해 덜 격식적인 상황에 쓰여 좀더 친밀한 느낌을 준다. 또 한국어의 의문문은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유형과 어떤 내용에 대해 가부(예/아니오) 판단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4ㄷ), (4ㄹ)처럼 의문사 ‘어디, 무엇’이 있는 경우는 전자에 속하고 (4ㄱ), (4ㄴ), (4ㄷ), (4ㄹ)처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종결의 양식으로서 종결어미 ‘-아라/-어라, -아/-어, -게, -오/-으오, -아요/-어요, -십시오/-시지요’ 등에 의해 표시된다.

- (5) ㄱ. 이것 좀 보아라. (해라체)  
 ㄴ. 이것 좀 봐(←보아). (해체/반말체)  
 ㄷ. 자네, 이리 좀 오게. (하계체)  
 ㄹ. 어서 집으로 돌아가오. (하오체)  
 ㄷ. 빨리 좀 오세요(←오시-+어요). (해체)  
 ㅂ. 이리 앉으십시오. (합쇼체)  
 ㅂ. 이리 앉으시지요. (합쇼체)

그런데윗사람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쓰는 합쇼체 명령형 ‘-십시오’는 권유의 뜻을 나타내는 ‘-시지요’로 대치되기도 한다. 명령은 아무리 정중하게 말하여도 정중함이 제대로 표현되기 어려우므로 권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종결의 양식으로서 종결어미 ‘-자, -세, -십시오, -시지요’ 등에 의해 표시된다.

- (6) ㄱ.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자. (해라체)  
 ㄴ.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세. (하계체)

ㄷ. 김 선생, 이제 퇴근합시다(←퇴근하-+-ㅂ시다). (하오체)

ㄷ . 이제 그만 가십시오. (합쇼체)

### 3.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차이

주격조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말이다.

- (1) ㄱ.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 ㄴ.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 ㄷ.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 ㄹ.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임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주격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1ㄱ), (1ㄹ)처럼 ‘이’가 쓰이고,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에는 (1ㄴ), (1ㄷ)처럼 ‘가’가 쓰인다. (1ㄱ)은 명사 ‘진달래꽃’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고 (1ㄴ)은 대명사 ‘우리’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준다. 또 (1ㄷ)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절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주고 (1ㄹ)은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임’이라는 절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이 말이 주어임을 표시해 준다. (1ㄷ)과 (1ㄹ)은 주격조사 ‘이/가’가 체언뿐만 아니라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도 붙을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주격조사는 ‘이/가’ 외에 ‘께서’와 ‘에서’가 있다. ‘께서’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로 판단되는 말 뒤에 붙는 주격조사이고, ‘에서’는 ‘나라, 정부, 회사, 학교’ 등과 같은 단체명사 뒤에 붙는 주격조사이다.

- (2) ㄱ. 할아버지께서 부르신다.
- ㄴ. 정부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2ㄱ)은 윗사람인 ‘할아버지’ 뒤에 ‘가’ 대신 ‘께서’가 붙은 예이고, (2ㄴ)은 단체를 나타내는 말인 ‘정부’ 뒤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은 예이다. (2ㄱ)의 경우는 ‘께서’ 대신에 ‘이/가’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가’ 대신 ‘께서’를 쓰면 앞말에 대해 더 극진히 존대한다는 느낌을 준다.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몇몇 어미 뒤, 심지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조차 붙어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말이다. 보조사가 격조사와 다른 점은 격조사는 앞말이 서술어와 맺는 관계를 표시해 주나 보조사는 앞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기만 할 뿐 서술어와의 관계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는’도 보조사로서 앞말에 대조 등의 의미만을 더해 준다.

- (3) ㄱ. 철수는 사과를 잘 먹는다.

- ㄴ. 철수가 사과는 잘 먹는다.
- ㄷ. 이 나무는 높은 산에서는 잘 자란다.
- ㄹ.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 ㅁ. 제주도에 가고는 싶지만 직장 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 ㅂ. 이 음식점이 깨끗은 하다만 매우 비싸구나.

(3ㄱ)은 주어인 ‘철수’ 뒤에 ‘는’이 붙은 예이고 (3ㄴ)은 목적어인 ‘사과’ 뒤에 ‘는’이 붙은 예이며 (3ㄷ)은 부사어인 ‘산에서’ 뒤에 ‘는’이 붙은 예이다. 또 (3ㄹ)은 부사 ‘아직’ 뒤에 ‘은’이 붙은 예이고 (3ㅁ)은 어미 ‘-고’ 뒤에 ‘는’이 붙은 예이며 (3ㅂ)은 단어라고 할 수 없는 ‘깨끗’ 뒤에 ‘은’이 붙은 예이다. 이처럼 보조사 ‘은/는’은 주격조사 ‘이/가’와 달리 체언 구실을 하지 못하는 부사나 어미, 어근 뒤에도 붙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조사 ‘은/는’은 앞말이 주어임을 표시하는 주격조사 ‘이/가’와 달리 앞말에 대조나 배제의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4) ㄱ. 이 식물이 높은 산에서는 잘 자란다.

- ㄴ. 이 식물이 (다른 데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든) 높은 산에서는 잘 자란다.

(4ㄱ)은 대체로 높은 산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뜻을 함축하나 “높은 산에서만 잘 자란다”라고 표현할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안 자란다는 뜻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즉 ‘은/는’이 붙은 (4ㄱ)은 (4ㄴ)과 같이 소극적인 배제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5) ㄱ. 나는 물냉면은 좋아하나 비빔냉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 ㄴ. 철수는 키가 크지만 철수 동생은 키가 작다.

(5ㄱ), (5ㄴ)에 쓰인 ‘은/는’은 대조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5ㄱ)은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대조되고 (5ㄴ)은 ‘철수’와 ‘철수 동생’이 대조되는데, 이처럼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대조하고자 하는 말들 뒤에 보조사 ‘은/는’을 붙이면 된다.

그런데 보조사 ‘은/는’이 문장 앞머리에 오는 주어 명사 뒤에 붙을 때에는 (4ㄱ), (4ㄴ), (5ㄱ), (5ㄴ)에서와 같은 배제나 대조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주제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6) ㄱ.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다.

- ㄴ.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 ㄷ.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는다.

(6ㄱ), (6ㄴ), (6ㄷ)에서 보조사 ‘은/는’은 문장 앞머리에 온 주어 명사 뒤에 붙어 “...에 대해 말하



‘이/가’도 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9ㄷ)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어미 ‘-면’에 의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이때에도 종속절의 주어 뒤에는 ‘이/가’만이 올 뿐 ‘은/는’은 오지 못한다(연결어미 ‘-면’이 결합한 앞 문장은 종속절이라 하고 연결어미 ‘-면’이 결합하지 않은 뒤의 문장은 주절이라 한다). (9ㄷ)처럼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된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즉 맨 바깥의 주어)로 기능하는 것은 주절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9ㄷ)은 전체 문장 속에 관형사절(각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안겨 있는 문장인데, 이 경우 역시 안쪽의 주어로는 ‘이/가’만 올 뿐 ‘은/는’은 오지 못한다.

#### 4. ‘-었-’과 ‘-었었-’의 차이

한국어에서 과거시제는 어미 ‘-었-’에 의해 표현된다. 과거시제는 어떤 일이 발생한 시점이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음을 나타내는데, 서술어에 ‘-었-’이 결합하면 이러한 뜻을 드러낸다.

- (1) ㄱ.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다.
- ㄴ.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 ㄷ. 철수는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 ㄹ. 철수는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

(1ㄱ)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점이, (1ㄴ)은 영화를 본 시점이, (1ㄷ)은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시점이, (1ㄹ)은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시점이 현재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서 있음을 나타내 준다. 위의 문장이 이처럼 과거 상황을 표시하는 것은 서술어에 결합한 어미 ‘-었-’의 기능 때문이다. 그런데 ‘-었-’이 과거 상황을 표시할 때에는 (1ㄱ)의 ‘1443년에’, (1ㄴ)의 ‘어제’, (1ㄷ)의 ‘고등학교 때’처럼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와서 과거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 보통이다.

(1ㄱ)은 음성모음(‘ㅏ’, ‘ㅑ’ 이외의 모음) 뒤에서 ‘-었-’이 온 경우인데, ‘-었-’은 그 앞의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았-’, ‘-였-’ 등으로 바뀌어 쓰인다. (1ㄴ)은 양성모음(‘ㅏ’, ‘ㅑ’) 뒤에서 ‘-았-’이 쓰인 예이고, (1ㄷ)은 ‘하다’ 동사의 어간이나 접미사 ‘-하-’ 뒤에서 ‘-였-’이 쓰인 예이다. (1ㄹ)은 <명사+이다> 서술어 뒤에 ‘-었-’이 결합한 예인데, 이때에는 ‘이었다’가 흔히 ‘였다’로 줄어든다. 즉 명사 ‘축구 선수’가 서술어가 되려면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여 ‘축구 선수이다’가 되는데,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하면 ‘축구 선수이었다’ 또는 ‘축구 선수였다’가 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었었-’은 ‘-었-’이 중복된 형태이지만 그 기능은 ‘-었-’과 약간 다르다. 우선 ‘-었었-’은 ‘-었-’에 의하여 표현되는 과거의 상황보다 한 발 앞선 때의 상황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었었-’이 나타내는 시제는 ‘-었-’이 나타내는 시제와 비교되어 대과거시제로 불리기도 한다.

- (2ㄱ) ㄱ. 작년에는 5월 초에 장미가 피었었다.  
 ㄱ . 올해는 5월 말인데도 아직 장미가 피지 않았구나.  
 ㄴ. 어제 누나가 왔었다(←오+왔었+다).  
 ㄴ . 어제 누나가 왔다(←오+왔+다).

(2ㄱ)은 (2ㄱ)과 비교할 때 더 이전의 상황을 표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점에서 (2ㄱ)은 ‘작년에는’이라는 부사어가, (2ㄱ)에서는 ‘올해는’이라는 부사어가 쓰이고 있다. 그런데 (2ㄴ)과 (2ㄴ)은 어느 것이 더 이전 상황이라는 느낌이 뚜렷하지 않다. 두 문장 모두 ‘어제’라는 부사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있었-’으로 표현될 때와 ‘-있-’으로 표현될 때는 적지 않은 의미 차이가 느껴진다. (2ㄴ)처럼 ‘-있었-’으로 표현될 때에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과거 상황이 발생했음을 함축하나 (2ㄴ)처럼 ‘-있-’으로 표현될 때에는 그러한 함축이 없기 때문이다. 즉 (2ㄴ)은 어제 누나가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그리하여 지금은 집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2ㄴ)은 어제 누나가 왔다는 사실만을 독립적으로 표현한 듯이 여겨진다. (2ㄴ)은 (2ㄴ)과 비교할 때 누나가 온 뒤로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함축한다.

### 5. ‘-있-’과 ‘-더-’의 차이

한국어의 과거시제는 ‘-있-’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더-’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 (1) ㄱ. 지난 밤에 비가 왔다(←오+왔+다).  
 ㄴ. 지난 밤에 비가 오더라(←오+더+다, ‘-더-’ 뒤에서는 어미 ‘-다’가 ‘-라’로 바뀜).

예컨대 지난 밤에 비가 온 사건에 대해 (1ㄱ)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1ㄴ)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1ㄱ)과 (1ㄴ)은 의미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있-’이 쓰인 (1ㄱ)은 화자가 비가 온 장면을 직접 봤거나 또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예컨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앞마당의 흙이 젖어 있고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비가 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 쓸 수 있는 문장이나, (1ㄴ)은 화자가 직접 비가 온 장면을 보았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장이다. 즉 ‘-더-’와 ‘-있-’은 동일한 과거 상황을 가리키더라도 ‘-더-’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그러한 상황을 지각하였음을 함축하고 ‘-있-’은 그러한 함축 없이 단순히 어떤 상황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났음을 알려 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더-’가 나타내는 시제는 회상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더-’는 화자가 과거에 경험하거나 인식한 내용을 회상하여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더-’의 이런 기능은, 대체로 주어가 화자와 동일한 일인칭일 때에는 그 서술어에 ‘-더-’가 쓰이기 어렵고 반면에 어떤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서술어가 쓰이는 문장에서는 거꾸로 그 주어가 화자와 동일한 일인칭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을 초래한다.



- (2) ㄱ. \*나는 술을 먹더라.  
 ㄴ. 나는 술을 먹었다.  
 ㄷ. (주위를 둘러 보니) 나만 술을 먹더라.
- (3) ㄱ. 나는 막걸리가 제일 좋더라.  
 ㄴ. \*철수는 막걸리가 제일 좋더라.  
 ㄷ. 철수는 막걸리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한껏 마셨다.)

대부분의 동사 서술어는 (2ㄱ)처럼 그 주어로 화자와 동일한 인물이 올 때에는 ‘-더-’와 결합되기 어렵다. 이럴 때는 (2ㄴ)처럼 ‘-었-’을 통해 과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는 자기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에게 관찰될 수 있는, 그리하여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ㄷ)처럼 그 주어로 화자와 동일한 인물이 오더라도 화자의 행위가 자기 스스로에게 관찰될 수 있을 때에는 그 서술어에 ‘-더-’가 결합될 수 있다.

(3ㄱ), (3ㄴ)은 어떤 심리 상태를 표시하는 심리형용사의 주어로는 화자와 동일한 일인칭만 올 뿐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어떤 인물의 심리는 자기 자신만이 관찰하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심리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다른 정황(예컨대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졌다든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든지, 긴장하여 다리를 계속 떨고 있다든지 하는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직접 그 사람의 심리를 관찰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심리형용사가 서술어이고 그 주어로 이인칭이나 삼인칭이 올 때에는 (3ㄷ)처럼 ‘-더-’가 오면 아주 어색하게 들리고 (3ㄷ)처럼 ‘-었-’이 쓰여야 제대로 된 한국어 문장이 된다.

## 6. 어미의 종류

한국어의 어미는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크게 자음어미,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로 나뉜다.

- (1) ㄱ. 자음어미: -고, -게, -지, -소, -겠-, ...  
 ㄴ. 모음어미: -어/-아, -어서/-아서, -었-/~았-, ...  
 ㄷ. 매개모음어미: -(으)니, -(으)면, -(으)시-, -ㄴ/-은, -ㄹ/-을, ...

자음어미는 (1ㄱ)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가리키고, 모음어미는 (1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가리키며 매개모음어미는 (1ㄷ)처럼 매개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가리킨다. 이중 모음어미는 그 앞말의 끝음절이 양성모음(‘ㅏ’, ‘ㅑ’)을 포함하고 있느냐 음성모음(‘ㅓ’, ‘ㅕ’) 이외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 계열과 ‘-어’ 계열로 갈린다. 그리고 매개모음어미는 앞말이 받침이 있느냐 받침이 없느냐에 따라 매개모음 ‘으’가 나타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앞말의 받침이 ‘ㄹ’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받침 없을 때처럼 ‘으’ 없는 어미가 연결된다).

(2) ㄱ. 꼬집어/붙잡아, 죽었다/죽었다

ㄴ. 먹으니/가니, 먹으면/가면, 앉으시다/오시다, 작은/큰(←크+ㄴ), 먹을/울(←오+ㄴ)

ㄷ. 우니(←울+ㄴ), 울면(←울+ㄴ), 우시니(←울+ㄴ+니), 운(울+ㄴ), 울(울+ㄴ)

(2ㄱ)은 앞말의 끝음절이 음성모음을 포함하고 있느냐 양성모음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양성모음어미를 선택하느냐 음성 모음어미를 선택하느냐가 결정됨을 보여 주는 예이고, (2ㄴ)은 앞말의 끝음절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으’가 있는 어미를 선택하느냐 ‘으’가 없는 어미를 선택하느냐가 결정됨을 보여 주는 예이다. (2ㄴ)은 앞말 끝음절의 받침이 ‘ㄹ’일 경우는 앞말 끝음절에 받침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으’ 없는 어미를 선택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

한국어의 어미는 단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뉜다.

(3) ㄱ. 잡-다, 잡-고, 잡-지, 잡-게, 잡-으니, 잡-아서, 잡-도록, 잡-습니다, 잡-세, 잡-는다,...

ㄴ. 잡았다, 잡았었다, 잡겠다, 잡더라, 잡으시다

ㄷ. 잡았겠다, 잡았더라, 잡으셨다(잡+으시+었+다), 잡으셨겠더라(잡+으시+었+겠+더+라)

(3ㄱ)은 어말어미의 예로서 이들은 단어의 맨 끝에 오므로 어말어미라 한다. (3ㄴ)은 선어말어미의 예로서 이들은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하여 선어말어미라 한다[‘선(先)’은 ‘앞’이라는 뜻]. 그런데 선어말어미는 (3ㄴ)에서 보듯이 꼭 어말어미 앞에만 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선어말어미 앞에도 온다. 그리고 (3ㄴ)에서처럼 선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 ‘잡았겠다’는 가능해도 ‘잡졌었다’는 불가능하고, ‘잡으셨다’는 가능해도 ‘잡았으시다’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약이 있다.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들 간의 순서는 (3ㄴ)의 ‘잡으셨겠더라’에서 보듯이 ‘-으시-’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 ‘-었-’, ‘-겠-’, ‘-더-’의 순서이다.

한편 한국어의 어말어미는 다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뉜다. (3ㄱ)에서 ‘-다, -습니다, -세, -는다’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이 있으므로 종결어미라 하고 그 밖의 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지 못하므로 비종결어미라 한다. 여기서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류를 표시하고 청자에 대한 존대의 정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 (4)는 문장의 종류와 청자에 대한 존대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를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윗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종결어미는 합쇼체 종결어미와 해요체 종결어미에 국한되고, 그 밖의 종결어미는 모두 윗사람에게 쓸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윗사람에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합쇼체는 해요체보다 더욱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말이란 느낌을 준다. 아랫사람에 쓰는 종결어미 중에서 하오체와 하계체는 사위나 나이 든 제자처럼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아랫사람에 쓰는 말이고 반말체와 해라체는 친구나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아랫사람에 쓰는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 생활에서는 윗사람에게 해요체를 쓰고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반말체를 쓰는 쪽으로 단순화하여 말하는 추세가 있다.

(4) 한국어의 종결어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합쇼체	<u>잡습니다</u> , 잡니다	잡 <u>습니까</u> , <u>잡니까</u>	<u>잡으십시오</u> , 잡으시지요	<u>잡으시지요</u>
해요체	<u>잡아요</u> , <u>작아요</u>	<u>잡아요</u> , <u>작아요</u>	<u>잡아요</u>	<u>잡아요</u>
하오체	<u>잡소/잡으오</u> , <u>가오</u>	<u>잡소/잡으오</u> , <u>가오</u>	<u>잡으오</u> , <u>가오</u>	잡을시다, <u>잡시다</u>
하계체	<u>잡네</u> , <u>작은이</u>	<u>잡나</u> , <u>작은가</u>	<u>잡게</u>	<u>잡세</u>
반말체	<u>잡안</u> , <u>작안</u>	<u>잡안</u> , <u>작안</u>	<u>잡안</u>	<u>잡안</u>
해라체	<u>잡는다/간다</u>	<u>잡느냐/잡니</u> , <u>작으냐</u>	<u>잡아라</u>	<u>잡자</u>

그런데 비종결어미는 다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느냐 한 문장을 명사나 관형사, 부사와 같은 한 성분으로 만들어 다른 문장 속에 안기게 하느냐에 따라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뉜다.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고 독립적으로 연결지어 주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하고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종속되게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다(이때 종속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에서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은 문장은 종속절이라 하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지 않은 뒷문장은 주절이라 한다). 그러나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가 항상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접속되는 문장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적 연결로 해석될 때도 있고 종속적 연결로 해석될 때도 있다. 아래에서 (5ㄱ), (5ㄴ)은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인 예이고 (6ㄱ), (6ㄴ)은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예이다.

- (5) ㄱ.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ㄴ.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고향에 있다.
- (6) ㄱ. 비가 와서(←오+아서) 소풍을 가지 못했다.  
 ㄴ.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가자.

비종결어미 중에서 한국어의 전성어미는 관형사형어미와 명사형어미, 부사형어미로 나뉘는데, 관형사형어미에는 ‘-는, -은, -던, -을’이 있고 명사형어미에는 ‘-음/-ㄱ(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음’이 쓰이고 받침이 없을 때에는 ‘-ㄱ’이 쓰인다), -기’, 부사형어미에는 ‘-이, -게, -도록’ 따위가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부사형어미는 종속적 연결어미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학자에 따라서는 부사형어미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7ㄱ), (7ㄴ)은 관형사형어미가 쓰인 예이고 (8ㄱ), (8ㄴ)은 명사형어미가 쓰인 예이며 (9ㄱ), (9ㄴ)은 부사형어미가 쓰인 예이다.

- (7) ㄱ.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이 왔다.  
 ㄴ. [어제까지도 무덥던]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다.

- (8) ㄱ.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ㄴ. 나는 [내가 실수를 했을]을 깨달았다.
- (9) ㄱ. 친구는 [말도 없이] 떠나 버렸다.  
 ㄴ. 저 아이가 참 [재주가 있게] 생겼구나.

## 7. 미래 표시

한국어에는 미래를 표시해 주는 말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미래 상황은 추측이나 화자의 의도 등을 나타내는 ‘-겠-’, 추측의 관형사형어미 ‘-을’과 의존명사 ‘것’,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 형성된 ‘-을 것이-’, 주로 현재를 나타내는 ‘-니다/-는다’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 (1) ㄱ. 회사일이 바빠서 철수가 더욱 힘이 들겠다.  
 ㄱ. 회사일이 바빠서 철수가 더욱 힘이 들 것이다(←들+르 것이+다).  
 ㄴ.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ㄴ. 내일은 바람이 불겠다.  
 ㄴ. 내일은 바람이 불 것이다(←불+르 것이+다).
- (2) ㄱ. 나는 내일 집에 간다(←가+ㄴ다).  
 ㄴ. 다음 주면 수업이 다 끝난다(←끝나+ㄴ다).

(1ㄱ), (1ㄴ), (1ㄴ)은 ‘-겠-’이 쓰인 예인데 (1ㄱ)은 추측, (1ㄴ)은 화자의 의지, (1ㄴ)은 미래의 뜻으로 해석된다. (1ㄴ)에 쓰인 ‘-겠-’ 역시 그 기본적인 뜻은 추측이겠으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이므로 미래 표현으로도 쓰인다. (1ㄱ), (1ㄴ)은 ‘-을 것이-’가 추측과 미래 용법으로 쓰인 예인데, 이 경우 ‘-겠-’에 비해 ‘-을 것이-’가 좀더 단정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된 추측이라는 의미 차이가 느껴지기도 한다. (2ㄱ), (2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니다’가 미래 표현에 쓰인 예이다. 이처럼 ‘-니다’가 미래 상황을 표현할 때에는 대체로 그것이 가까운 미래라는 특징이 있다.

## 8. 체언(體言)

체언은 문장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역할을 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보이는 대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문장에서 몸체 역할을 하는 말이다. 체언은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는데, 이들은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체언 중에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꾸밈)을 받아 확장되기도 하고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 ‘들’이 붙기도 하며 새로운 목록이 얼마든지 더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명사는 복수 보조사 ‘들’이 붙을 수 있으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확장되기는 어렵고 목록도 정해져 있어 새로운 항목이 더해지기 어렵다. 수사는 복수 보조사 ‘들’이 붙을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확장되기 어려

우며 비록 그 목록이 무척 많기는 하나 대명사처럼 새로운 수사가 추가되기 어렵다.

체언과 대립되는 말은 용언인데(용언은 여러 어미가 붙어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보이는 말로서 동사, 형용사가 이에 속한다), 체언과 용언은 문장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언은 확장될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용언은 확장될 때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며, 체언은 격조사와 결합하여 자신의 문법적 역할을 드러내고 용언은 여러 어미와 결합하여 자신의 문법적 기능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 9. 수사(數詞)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수사는 흔히 양수사(量數詞)와 서수사(序修辭)로 나뉜다. 양수사는 어떤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사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기수사(基數詞)라고도 한다. 양수사에는 한자어계와 고유어계가 있는데, 고유어계 양수사는 (1ㄱ)에서 보듯이 아흔아홉까지만 존재한다.

- (1) 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아흔아홉
  - ㄴ. 한, 두, 세/서/석, 네/너/넉,닷, 스무
  - ㄷ. 한둘, 두셋, 서넛, 두서넛, 너댓, 댓, 너더댓, 대여섯, 예닐곱; 한두, 두세, 두서너
- (2) ㄱ. 영(零), 일(一), 이(二), 삼(三), 사(四), 오(五), 육(六), 칠(七), 팔(八), 구(九), 십(十), 백(百), 천(千), 만(萬), 억(億), 조(兆), …
  - ㄴ. 일이(一二), 이삼(二三), 삼사(三四), 사오(四五), 오륙(五六), 육칠(六七), …

고유어계 양수사는 관형어로 쓰이면 일부가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하며([1ㄴ] 참조), 둘 이상의 수사가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1ㄷ] 참조).

(2)는 한자어계 양수사의 예이며, (2ㄴ)은 둘 이상의 수사가 결합된 예이다. 한자어계 양수사는 고유어계와 달리 없음을 표시하는 ‘영(零)’이 있으며 수 표시에 제한이 없다. 또 이들은 ‘삼 권(券), 오 리(里), 십 세(歲)’에서 보듯이 한자어계 수량 단위 의존명사 앞에 주로 쓰이는데, 이들과 한자어계 의존명사가 결합한 말은 대체로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의 서수사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서 고유어계 서수사는 대체로 양수사에 접미사 ‘-째’가 붙어 형성되며 한자어계 서수사는 양수사에 접두사 ‘제(第)-’가 붙어 형성된다.

- (3) 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열째, 열한째, 열두째, 열셋째, … 스무째, …, 서른째, … 아흔아홉째
  - ㄴ. 제일(第一), 제이(第二), 제삼(第三), 제사(第四), …

(3ㄱ)은 고유어계 서수사이다. 고유어계 서수사가 고유어계 양수사에 '-째'가 붙어 형성된다는 규칙에 따르면 '첫째', '열한째', '열두째', '스무째'는 이의 예외가 된다. 규칙에 따르면 '첫째', '열한째'는 '하나째', '열하나째'가 되어야 하고, '열두째', '스무째'는 '열둘째', '스물째'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서 '두째'가 되나 '셋째'나 '넷째' 등은 십 단위 이상의 경우에도 '세째'나 '네째'가 되지 않음이 특이하다.

수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 고유어계 수사는 고유어계 명사와 어울리고 한자어계 수사는 한자어계 명사와 어울리는 것이 보통이다([4ㄱ, 4나] 참조). 그러나 작은 숫자이거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의 수량을 나타낼 때에는 고유어계 수사가 선호되고([4ㄷ] 참조), 큰 숫자이거나 우리에게 덜 익숙한 단위의 수량을 나타낼 때에는 한자어계 수사가 선호된다.

- (4) ㄱ. 소 다섯 마리, 쌀 두 되, 밤 세 톨, 조기 두 두름, 바늘 네 째  
 나. 나이 십오 세(歲), 무덤 삼 기(基), 대포 오십삼 문(門), 세 시간 삼십 분(分)  
 ㄷ. 두 시간(時間), 쇠고기 다섯 근(斤), 사과 세 개(箇), 육십 년(年)

## 10. 용언(用言)

용언은 활용하는 말을 가리키는데, 활용은 단어에서 줄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를 어간[語幹]이라고 한다)에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어미(語尾)가 붙어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아래 (1)에서 어간 '먹-', '좋-'에 어미 '-는다, -느냐, -으냐, -고, -지, -어, -은, -는, -으면서'가 붙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며, 여기서 여러 어미가 붙을 수 있는 어간 '먹-', '좋-'을 용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용언은 다양한 어미가 붙어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1) ㄱ. 먹는다, 먹느냐, 먹고, 먹지, 먹어, 먹는, 먹게, 먹으면서, ...  
 나. 좋다, 좋으냐, 좋고, 좋지, 좋아, 좋은, 좋게, 좋으면서, ...

한국어의 용언에는 자립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용언에 의존하여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이 있는데, 이를 보조용언이라 한다. 보조용언이 의존하는 선행 용언은 본용언이라 하는데,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는 각각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어', '-고', '-게', '-지', '-니까/-는가/-나, -으면', '-기는, -어야', '-려고, -곤, -다고', '-을, -는'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밑줄 친 말이 보조용언이다).

- (2) ㄱ. 먹어 보다, 도와 주다, 해 내다  
 나. 먹고 있다, 먹고 싫다, 유혹에 빠지고 말다  
 ㄷ. 예쁘게 생기다, 유치하게 굴다, 잃게 마련이다  
 ㄹ. 먹지 않다, 가지 못하다, 뛰지 마라(←말아라)

- ㄱ. 저기가 덕수궁인가 {보다, 싶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한다, 싶다}
- ㄴ. 좋기는 하다, 먹어야 한다
- ㄷ. 하려고 {하다, 들다}, 흘끔흘끔 쳐다보곤 한다, 네 말이 옳다고 치자
- ㄹ.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아는 척하다, 일이 될 법하다

한편, 한국어의 일부 용언은 일부 제한된 어미와만 결합하는 활용 제약이 있다. ‘데리다, 달다, 더불다’ 등이 그 예인데 이들은 흔히 불구동사나 불완전동사라고 불린다. ‘데리다’는 ‘데리고, 데려, 데리러’로만 활용하고 ‘달다’는 ‘달라, 다오’로만 활용하며 ‘더불다’는 ‘더불어’로만 활용한다.

## 11. 경어법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나 친하고 친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 적절한 말을 골라 써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존대말을 써야 한다. 따라서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의 윗사람에게 존대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예컨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라고 해야 할 자리에 “할아버지, 밥 먹어”라고 한다면 그는 여지없이 버릇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윗사람이 먹는 밥을 특별히 ‘진지’라 하고 윗사람이 먹는 것을 특별히 ‘잡수시다’라고 하여 아랫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경어법은 꽤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어법은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구별될뿐더러 개인적으로 친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 존대말을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신과 친하지 않은 낯선 사람일 때에는 존대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게의 종업원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다고 해서 반말을 쓸 수는 없다. 이럴 때 “맥주 한 병 주세요” 하지 않고 “맥주 한 병 쥐”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교양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 12. 주체경어법

문장은 대체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 주어는 보통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보통 인간)를 나타내기도 하며 일정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서술어는 주어와 관련된 그러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

- (1) ㄱ. 하늘이 참 맑다. (‘하늘’ = 대상)
- ㄴ. 나는 베토벤이 정말 좋다. (‘나’ = 경험주)
- ㄷ. 저기 철수가 지나간다. (‘철수’ = 동작주)

(1ㄱ, ㄴ)에서 ‘하늘이’, ‘나는’은 각각 맑은 상태를 보이는 대상과 좋다는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경험주를 나타내는 말로서 모두 주어이고, 이때 ‘맑다’, ‘좋다’는 각각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서술어이다. 또 (1ㄷ)의 ‘철수가’는 지나가는 동작을 하는 동작주로서 주어이며 ‘지나간다’는 그러한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주어로 오는 인물이 말을 하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때에는 그 서술어에 ‘-시-’라는 어미를 붙여 해당 주어 인물을 존대한다. ‘-시-’가 붙은 서술어는 ‘-시-’가 붙지 않은 서술어와 구별되어 그것이 상위자(높은 사람)와 관련된 상태나 동작임을 특별히 가리키므로 결과적으로 ‘-시-’는 주어로 오는 인물을 존대하는 기능을 한다.

- (2) ㄱ. 어머니가 얼굴이 참 예쁘시군요.
- ㄴ. 어머니는 베토벤이 정말 좋으시가 봐.
- ㄷ. 어머니가 지나가시다.

(2)에서 ‘예쁘시-’, ‘좋으시-’, ‘지나가시-’라는 서술어는 상위자인 어머니와 관련된 상태나 동작을 비상위자(높지 않은 사람)의 것과 구별지어 가리키는 구실을 한다. ‘-시-’는 여러 서술어에 붙어 그러한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나 동작이 화자보다 상위자인 인물(대체로 주어)과 관련되어 있음을 특별히 가리켜 준다.

한편 화자에게 상위자로 인식되는 인물을 가리킬 때는 ‘-님’이 붙을 수 있으면 ‘-님’을 붙여 상위자임을 특별히 표시해 주고(한국어에서는 일부 명사만 ‘-님’이 붙을 수 있다), ‘-님’이 붙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위자를 가리키는 존칭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상위자가 주어로 기능할 때에는 그 뒤에 ‘이/가’ 대신 ‘께서’를 붙여 앞말이 상위자임을 강조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 (3) ㄱ. 과장/과장님, 선생/선생님, 교수/교수님, 부처/부처님, 서방/서방님, 부모/부모님
- ㄴ. 딸/딸님, 하늘/하느님,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 누나/누님

(3)에서 ‘-님’이 붙은 말은 그 말이 상위자를 가리킴을 특별히 드러내 주는데, 이때 ‘-님’은 직함이나 친족 명칭 등에 붙는 것이 보통이다. (3ㄴ)은 ‘-님’이 붙으면서 앞말의 모습이 바뀐 예이다.

- (4) ㄱ. 아내/부인(夫人), 아버지/춘부장(春府丈)
- ㄱ. 밥/진지, 말/말씀, 나이/연세(年歲), 생일(生日)/생신(生辰)
- ㄴ. 철수야, 밥 먹었니?
- ㄴ. (할아버지,) 진지 잠수셨습니까?
- ㄷ. 철수가 유익한 말을 많이 해 주었다.
- ㄷ. 선생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 ㄷ. .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ㄱ)의 ‘부인, 춘부장’은 ‘아내, 아버지’의 존대어로 기능한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는 ‘아내, 아버지’라는 보통의 말을 사용하여 가리키나 남의 아내와 남의 아버지는 상위자로 인식하여 특별히 ‘부인, 춘부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가리킨다. 이처럼 상위자나 상위자와 관련되는 것을 가리킬 때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말 외에 특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 경어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4ㄱ)의 ‘진지, 말씀, 연세, 생신’ 역시 상위자의 밥, 말, 나이, 생일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상위자가 아닌 철수의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4ㄴ, ㄷ)에서 보듯이 ‘밥, 말’이란 말을 쓰나 상위자인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존대어인 ‘진지, 말씀’이란 말을 써야 올바른 한국어가 된다. 그런데 ‘말씀’은 (4ㄷ)에서 보듯이 상위자의 말을 가리키는 존대어로 쓰일 뿐만 아니라 (4ㄷ)에서 보듯이 상위자 앞에서 자신의 말을 낮추어 가리키는 겸양어로도 쓰인다.

- (5) ㄱ. 어머님께서 얼굴이 참 예쁘시군요.  
 ㄴ. 어머님께서는 베토벤이 정말 좋으신가 봐.  
 ㄷ. 어머님께서 지나가신다.

(5)는 상위자를 가리키는 말(여기서는 ‘어머님’)이 주어로 올 때 그 뒤에 ‘이/가’ 대신 ‘께서’가 결합한 예이다. 주어가 상위자를 가리킬 때 그 주격조사로는 ‘이/가’가 쓰이기도 하고 ‘께서’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처럼 ‘께서’가 쓰일 때에는 ‘이/가’가 쓰일 때에 비해 주어 인물을 극진히 높여 대우한다는 뜻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서술어는 ‘-시-’가 붙어 그것이 상위자에 관련된 상태나 동작임을 표시하지만 일부 서술어는 ‘-시-’가 붙을 때 불규칙적으로 그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 (6) ㄱ. 자다/\*자시다/주무시다, 먹다<sup>??</sup>먹으시다/자시다/잡수시다  
 ㄴ. 아프시다/편찮으시다, 있으시다/계시다

(6ㄱ)에서 보듯이 ‘자다, 먹다’가 상위자에 관련된 동작을 나타낼 때에는 원래 서술어에 ‘-시-’가 붙은 ‘자시다, 먹으시다’가 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주무시다’와 ‘자시다, 잡수시다’로 그 모습을 바꾼다. 이는 마치 ‘아내’의 존대어가 ‘-님’이 붙은 ‘아내님’이 아니라 ‘부인’이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어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그 상태나 동작이 상위자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할 때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일은 드물며 대부분의 서술어는 ‘-시-’만 붙여 그러한 기능을 한다. (6ㄱ)에서 ‘먹다’의 존대어로 제시된 ‘자시다, 잡수시다’ 중에서는 ‘잡수시다’가 더 존귀한 인물과 관련된다.

(6ㄴ)은 서술어가 변하지 않고 ‘-시-’만 붙는 경우와 서술어가 모습을 바꿔 ‘-시-’와 결합하는 두 종류가 있는 예이다. 서술어가 변하지 않은 ‘아프시다, 있으시다’는 아래 (7ㄱ, ㄴ)에서 보듯이 상위자로 인식되는 인물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자 인물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따위와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다. (7ㄱ, ㄴ)에서 ‘아프시다, 있으시다’의 직접적 주어는 상위자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허리와 할아버지의 돈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7ㄱ, ㄴ)에서 보듯이 서술어가 모습을 바꾼 ‘편찮으시다, 계시다’는 상위자로 인식되는 인물 전체와 관련된다.

- (7) ㄱ.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  
 ㄱ.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시다.  
 ㄴ. 할아버지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ㄴ.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 계시다.

### 13. 객체경어법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또는 사물을 주체라 하고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인물 또는 사물을 객체라 하여 이 둘을 구별한다.

- (1) ㄱ. 철수 엄마가 철수를 데리고 공원에 간다. (‘철수 엄마’ = 주체, ‘철수’ = 객체)  
 ㄴ. 민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민수’ = 주체, ‘영희’ = 객체)

(1ㄱ)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인 ‘철수 엄마’는 주체라 하고 주체의 행위, 즉 철수 엄마가 데리고 가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철수’는 객체라 한다. (1ㄴ) 역시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인 ‘민수’는 주체라 하고 주어의 행위, 즉 민수가 선물을 주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영희’는 객체라 한다. (1ㄱ)은 객체가 목적어로 나타났으나 (1ㄴ)은 객체가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객체경어법은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보다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인물(주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상위자일 때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어의 행위가 상위자에 대한 것임을 특별히 가리키는 경어법이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상위자를 향한 것임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위자(여기서는 객체)를 존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흔히 이러한 현상을 객체경어법이라 한다.

- (2) ㄱ. 철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아버지께 여쭙는다.  
 ㄴ. 아버지는 컴퓨터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철수에게 묻는다.  
 (3) ㄱ. 철수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ㄴ. 아버지가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4) ㄱ.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소풍을 갔다.  
 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다.  
 (5) ㄱ. 철수는 선생님을 뵙자 (선생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다.  
 ㄴ. 선생님은 철수를 보자 (철수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하였다.

(2ㄱ), (3ㄱ), (4ㄱ), (5ㄱ)은 상위자인 객체를 향한 하위자인 주체의 행위를 나타낼 때 특별한 어휘

인 ‘여쭙다’, ‘드리다’, ‘모시다’, ‘뵙다’를 써서 결과적으로 주체의 객체에 대한 존대를 표시한 예이다. (2ㄱ), (3ㄱ)은 객체가 부사어로 나타난 예이고 (4ㄱ), (5ㄱ)은 객체가 목적어로 나타난 예인데 (2ㄱ), (3ㄱ)처럼 상위자 객체가 부사어로 나타날 때에는 그 뒤에 존대의 조사 ‘께’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객체가 상위자라는 것은 주체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므로 객체가 사회적으로는 존귀한 인물일지라도 주체보다 상위자가 아닐 때에는 객체경어법은 쓰이지 않는다. 예컨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으셨다”에서 보듯이 객체(‘할머니’)가 존귀한 인물일 때에도 주체(‘할아버지’)보다 상위자가 아니라면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객체경어를 나타내는 말이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위의 예에서 객체인 할머니가 주체인 할아버지보다 상위자라면 그 서술어에 ‘물으셨다’가 아니라 ‘여쭙셨다’가 쓰여야 한다). (2ㄴ), (3ㄴ), (4ㄴ), (5ㄴ)은 주체보다 객체가 상위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어휘인 ‘여쭙다’, ‘드리다’, ‘뵙다’, ‘모시다’가 쓰이지 못하고 보통의 어휘인 ‘묻다’, ‘주다’, ‘보다’, ‘데리다’가 쓰인 예이다.

한편 객체경어법은 주체경어법과 달리 현대국어에서는 그 쓰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주체경어법은 어느 서술어에나 ‘-시-’를 붙여 그 주체를 높일 수 있으나 객체경어법은 ‘-시-’에 견줄 만한 형태소가 따로 없고 위에서 보듯이 주체의 객체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몇몇 동사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존대형이 없는 대다수 서술어에서는 객체가 아무리 존귀한 인물이라도 그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지 못한다.

- (6) ㄱ. 철수는 선생님을 매우 존경한다.
- ㄴ. 영화는 아버지께 달려갔다.

(6ㄱ), (6ㄴ)에서 객체인 ‘선생님’, ‘아버지’는 주체인 ‘철수’, ‘영화’에 비해 분명히 상위자이다. 그런데도 그 서술어에는 객체존대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존경하다’, ‘달려가다’ 따위의 서술어는 객체존대 형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14. 청자경어법

한국어를 하는 화자는 말을 듣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 및 자신과의 친근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말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자에 따른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의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한국어에서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 및 화자와의 친근 관계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의 말투가 존재한다.

첫째는 ‘해라체’라고 불리는 말투이다. 이 말투는 나이 어린 손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쓰인다. 명령문에서는 ‘-아라/-어라’가 쓰이고, 평서문에서는 ‘-다, -ㄴ다/-는다’가 쓰이며, 감탄문에서는 ‘-구나/-는구나’, 의문문에서는 ‘-니, -냐’, 청유문에서는 ‘-자’가 쓰인다.

- (1) ㄱ. 창호야, 너는 집에 있어라. (명령문)

- ㄴ. 애, 저기 빈 택시가 온다(←오+ㄴ다). (평서문, 받침 없는 동사 뒤에 쓰임)
- ㄴ. 우리 애는 벌써 밥을 먹는다. (평서문, 받침 있는 동사 뒤에 쓰임)
- ㄴ. 하늘이 참 맑다. (평서문, 형용사 뒤에 쓰임)
- ㄷ. 벌써 여름이 오는구나. (감탄문, 동사 뒤에 쓰임)
- ㄷ. 꽃이 참 예쁘구나. (감탄문, 형용사 뒤에 쓰임)
- ㄹ. 너 지금 바쁘냐? (의문문, 형용사 뒤에 쓰임)
- ㄹ. 너는 아직도 책을 다 못 읽었니? (의문문, 동사나 ‘-었-, -겠-’ 뒤에 쓰임)
- ㅁ. 애들아,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 (청유문, 동사 뒤에 쓰임)

둘째는 ‘해체’ 또는 반말체라고 불리는 말투이다. 손아랫사람이나 친구 사이라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쓰인다. 해라체보다 상대방을 더 어려워하는 말투라는 점에서 화자가 덜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주며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이 말투는 주로 ‘-아/-어’로 끝나는데 ‘-아/-어’ 다음에 오는 억양의 종류에 따라 명령문이나 평서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문이 되기도 한다.

- (2) ㄱ. 창호야, 너는 집에 있어. (명령문)
- ㄱ. 김 군, 이리 좀 오진. (명령문)
- ㄴ. 애, 밖에 눈이 와(←오+아). (평서문)
- ㄷ. 너 지금 바빠? (의문문)
- ㄹ. 애들아, 나랑 같이 놀아. (청유문)

셋째는 ‘하계체’로서 청자가 손아랫사람이기는 하나 나이가 들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때 쓰인다. 이 말투는 화자 역시 나이가 들어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만할 때 쓰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반말체와 다른 점이다. 교수가 학생에게, 아버지가 성년이 된 아들 친구에게, 손윗동서(同輩)가 손아랫동서(同輩)에게 쓰면 잘 어울린다. 명령문에서는 ‘-게’가 쓰이고, 평서문에서는 ‘-네, -(으)이, -(으)르세’, 감탄문에서는 ‘-구먼, -는구먼’, 의문문에서는 ‘-(은)ㄴ가, -나/-는가’, 청유문에서는 ‘-세’가 쓰인다.

- (3) ㄱ. 창호, 자네는 집에 있게. (명령문)
- ㄴ. 여보게, 저기 빈 택시가 오네. (평서문, 동사 뒤에 쓰임)
- ㄴ. 요즘은 참 기분이 좋으이/ 좋네. (평서문, 형용사 뒤에 쓰임)
- ㄴ. 여보게, 날세(←나+이+르세). (평서문, ‘이다’ 뒤에 쓰임)
- ㄷ. 지금 들어오는가? 꽤 늦었구먼. (감탄문, 형용사나 ‘-었-, -겠-’ 뒤에 쓰임)
- ㄷ. 저기 오는구먼. (감탄문, 동사 뒤에 쓰임)
- ㄹ. 자네 지금 바쁘가(←바쁘-+ㄴ가)? (의문문, 형용사 뒤에 쓰임)
- ㄹ. 자네도 이런 음식을 좋아하나/ 좋아하는가? (의문문, 동사 뒤에 쓰임)
- ㅁ. 여보게들, 나랑 같이 가세. (청유문)

넷째는 ‘하오체’이다. 이 말투는 청자가 손아랫사람이기는 하나 화자와 뚜렷한 상하 관계에 있지 않고 화자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쓰이며, 화자 역시 나이가 들어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만할 때 쓰인다. 하오체는 하계체에 비해 상대방을 더 극진히 대접하는 말투이다. 명령문에서는 ‘-오, -으오’가 쓰이고,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오, -소/-으오’, 감탄문에서는 ‘-구려/-는구려’, 청유문에서는 ‘-(으)십시오’가 쓰인다. 한편 성년의 여성들이 손윗동서나 언니 등의 사람을 친근하게 대할 때에 쓰는 어미로 ‘-(으)우’가 있다. (4口), (4口 )가 바로 그러한 예인데, 이 말은 주로 서울 지역에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4) ㄱ. 여보, 거기 앉아 좀 쉬오. (명령문, 받침 없는 말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  
 ㄱ. 여보, 어서 내 손을 잡으오. (명령문, ‘ㄹ’ 이외의 받침 있는 말 뒤)  
 ㄴ. 형의 편지 잘 받았소. / 그 사람은 돈이 많소? // 나는 요즘 시집을 읽으오. / 거기는 물이 얼마나 깊으오? (평서문/의문문, ‘ㄹ’ 이외의 받침 있는 말 뒤)  
 ㄴ. 비가 오려나 보오. /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평서문/의문문, 받침 없는 말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  
 ㄷ. 김 형, 참 오랜만이오. 다시 만나니 참 반갑구려. (감탄문, ‘-구려’는 형용사 뒤에 쓰이고 ‘-는구려’는 동사 뒤에 쓰임)  
 ㄷ. 김 형, 우리 이제 정치 얘기는 그만 합시다(←하-+-ㅁ시다). (청유문,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뒤. ‘ㄹ’ 이외의 받침 있는 동사 뒤에서는 ‘-읍시다’)  
 ㄹ. 요즘은 책은커녕 신문도 못 읽으우. / 무슨 우물이 이렇게 깊으우? / 어서 내 손을 잡으우. (평서문/의문문/명령문, ‘ㄹ’ 이외의 받침 있는 말 뒤)  
 ㄹ. 내 먼저 들어가우. / 요즘은 손님이 전혀 없우. / 벌써 가우? / 그 떡 형님이 돌렸우? / 부엌일은 형님이 하우. (평서문/의문문/명령문, 받침 없거나 ‘ㄹ, ㅅ, ㅁ’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

다섯째는 ‘해요체’이다. 윗사람에게 쓰이며, 격식을 덜 차리고 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그리하여 그만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말투이다. 앞서 언급한 ‘해체’와 더불어 구어체에 쓰이는 대표적인 말투이다. 이 말투는 주로 ‘-아요/-어요’로 끝나는데 ‘-아요/-어요’ 다음에 오는 억양의 종류에 따라 명령문이나 평서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문이 되기도 한다. 다만 명령문에서는 대체로 ‘-시-’가 붙어 ‘-(으)세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래 (5ㄷ)의 ‘-(으)르까요’는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해요체’ 의문문이다.

- (5) ㄱ. 아저씨, 이제 좀 쉬세요(<sup>??</sup>쉬어요). (명령문)  
 ㄴ.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오-+-아요). (평서문)  
 ㄷ. 어머니, 창호 어디 갔어요? (의문문)  
 ㄷ. 어머니, 제가 먼저 집에 갈까요? (의문문)

여섯째는 ‘합쇼체’로서 상대방을 가장 높여 대접하는 말투이다. 다소 격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나 한국어에서는 가장 정중한 말투이다. 명령문에서는 ‘-(으)십시오’가 쓰이고, 평서문에서는 ‘-습니다, -습니다’, 의문문에서는 ‘-습니까, -습니까’, 명령문에서는 ‘-(으)십시오’가 쓰인다.

- (6) ㄱ. 선생님, 이리 앉으십시오(\*앉읍시오). (명령문, ‘ㄹ’ 이외의 받침 있는 말 뒤에 쓰임)  
ㄱ.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명령문,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나 받침 없는 말 뒤에 쓰임)  
ㄴ. 아버지, 밖에 눈이 옵니다(←오-+-ㅂ니다). (평서문, 받침 없는 말 뒤에 쓰임)  
ㄴ. 아버지, 저 먼저 집에 가 있겠습니다. (평서문, 받침 있는 말 뒤에 쓰임)  
ㄷ. 박사님, 이 선인장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이-+-ㅂ니까)? (의문문, 받침 없는 말 뒤에 쓰임)  
ㄷ. 선생님, 제 아이가 요즈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의문문, 받침 있는 말 뒤에 쓰임)  
ㄹ. 아버님, 이제 그만 들어가지지요. (명령문)